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

조 성 주*

1. 서론
2. 연합지휘체계 형태와 특징
3.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 운용 분석
4.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5. 결론

1. 서 론

우리 군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될 예정이다.¹⁾ 전시작전통제권이 예정대로 한국군에 이양된다면,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부 파병사 담당관, 전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전쟁사 전문교관

1) 2013년도 한·미 양국은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2014년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장차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갖게 될 경우를 고려한 한·미

이는 1950년 7월 14일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양도한 이래 65년 만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됨과 동시에 현재 한반도 전구에서의 전시 군사작전을 책임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게 되어있다. 이로써 전시 한미 연합작전은 한국군 주도, 미군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지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대등한 지휘관계로 한·미 협조기구를 발족하여 전략적 수준으로부터 작전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양군의 작전을 협조, 조정, 통제하게 될 것이다.

한·미 연합작전 협조기구는 양국군의 노력을 통일하기 위한 작전협조와 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협조기구의 효과적인 편성과 운용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매우 긴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걸프전쟁시 다국적 작전(多國籍作戰)²⁾ 지휘체계는 2015년에 형성되는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 걸프전쟁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에 맞서 31개 국가가 전투 병력을 파견하여 다국적군을 구성하였다.³⁾ 이러한 다국적군은 미 중부사령부와 사우디아라비아⁴⁾ 중심의 아랍 합동군사령부가 대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였다.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구성될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체계 하에서 수행된 걸프전쟁은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전쟁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쿠웨이트를 불법적으로 기습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다국적군이

연합협조기구 운용에 대한 분석이다.

2) 다국적 작전(Multinational Operations)이란 2개 국가 이상의 군에 의해 수행되는 군사행동의 총체적인 용어이며, 동맹(Alliance)관계나 일시적인 제휴(Coalition)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특정국가의 주도에 의해 수행되는 협조된 작전을 말한다. (합동교범 1 『합동기본교리』, 2009. 10.)

3)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법문사, 2008, 101쪽.

4) 이하 사우디로 표기함.

사우디 영토와 페르시아만(灣) 등 아라비아반도 근해에 파견되어 유엔안보리 결의안 678호⁵⁾(1990.11.29)에 의거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군을 격멸하고 쿠웨이트 회복을 목표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이 수행한 군사작전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의 사우디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사막의 방패작전(Op. Desert Shield)’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678호에 근거하여 쿠웨이트내의 이라크군을 격멸하고 쿠웨이트를 회복하기 위해 수행된 ‘사막의 폭풍작전(Op. Desert Storm)’으로 구분된다.

사막의 폭풍작전 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첨단 전력을 운용, 39일간의 항공작전과 100시간의 지상작전을 통해 쿠웨이트내의 이라크군을 격파하고 쿠웨이트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간 미 중부사령부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는 대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면서 연합 협조, 통신, 통합본부(C3IC: Combined Coordination, Communication, Integration Center)와 연락반 등의 협조기구를 운용하였다. 이 협조기구는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한 양측 사령부의 작전을 협조,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다국적 작전 시 노력의 통일과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전훈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협조기구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전 기간에 걸쳐 작전의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과 같은 맥락에서 연합작전수행을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걸프전쟁 시 다국적 지휘체계의 형성과 협조기구의 운용을 고찰하여, 2015년 한국군이

5)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의 주요내용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군이 1991년 1월 15일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중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이라크군에 대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주요 문서이다.

한반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한·미 연합작전 협조기구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합지휘체계 형태와 특징⁶⁾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이란 2개국 이상의 군대가 장기적인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협약이나 조약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협조된 작전을 말한다.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 및 통제는 연합군의 노력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지휘구조와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참가국간의 협의로부터 이루어진다.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자국 부대에 대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합군 지휘체계는 통상 참가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은 일반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되며 작전통제, 전술통제, 또는 지원과 협조관계 등의 형식으로 기술된다.

연합국 지휘체계는 통합지휘체계, 주도국 지휘체계, 병립지휘체계, 혼합지휘체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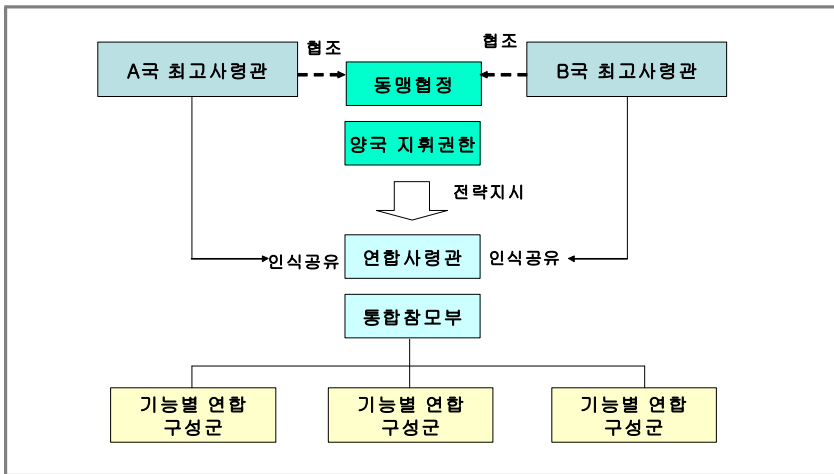
통합지휘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맹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수행되는 연합작전 시에 지휘의 통일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휘체계이다. 이 지휘체계의 특징은 단일 지휘관과 회원국 대표자로 구성된 참모부,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하위제대까지 통합된 지휘부와 참모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지휘체계의 예로는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그리고 현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들 수 있다.

주도국 지휘체계 <표 2>의 (A)는 참가국의 모든 부대를 주도적인 전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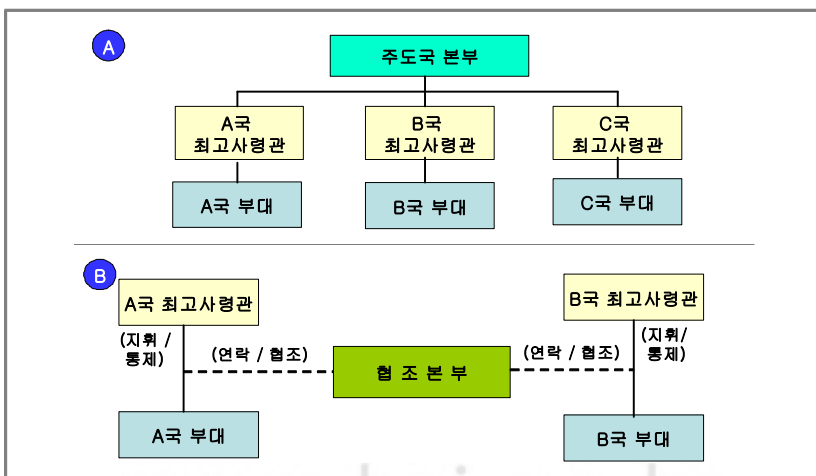
6)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 『합동기본교리』, 2009, 114~120쪽.

지원을 제공하는 특정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지휘체계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주도국사령부에 연락요원을 파견하며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증원을 받아 참모부를 증편할 수 있다.

〈표 1〉 통합지휘체계



〈표 2〉 주도국 지휘체계(A)와 병립 지휘체계(B)



병립지휘체계 <표 2>의 (B)는 각 참가국별로 별도의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참가국들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참가국 부대의 지휘관이 자국 부대를 계속 지휘하면서 협조기구를 통하여 상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병립지휘체계의 특징은 참가국간 별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참가국들의 노력을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통일하였다. 그 사례로는 제2차세계대전시 미국과 영국 간에 구성된 연합참모부, 베트남전시 한국·미국·자유베트남간에 구성된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 걸프전시 미 중부군사령부와 아랍 합동군사령부 간에 구성된 C3IC 등이 있다.

혼합지휘체계는 단일지휘체계와 병립지휘체계가 혼합된 지휘체계이며, 동맹국 이외의 다른 참가국이 있을 경우에 동맹국 지휘구조를 모태로 참가국의 규모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체계다. 참전하는 특정 국가의 부대가 작전적 수준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자국의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 사령부와 병립체계를 유지하는 지휘체계이다. 반면, 참전하는 특정 국가의 부대가 전술단위 부대일 경우에는 자국의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 사령부의 전술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체계로 운용될 수 있다.

혼합지휘체계는 걸프전쟁시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동안에 적용되었다. 서방권 참가국들은 미국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아랍권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서방권과 아랍권 간에는 병립지휘체계를 형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체계와 관계없이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위해 별도의 연락반을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합작전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국군의 모든 사령부나 부대에 연락반을 운용함으로써 상호지원과 군사작전 이외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2015년 이후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지휘체계 형태는 마지막에 설명된 혼합지휘체계 형태가 될 것이다. 단일지휘체계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면서 병립하는 연합지휘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휘체제하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양 사령부간 작전 협조와 조정을 위한 연합 협조본부의 편성과 운용이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3.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 운용 분석

1)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지휘체계

걸프전쟁 시 31개국에서 전투부대를 파견함으로써 다국적군 형태의 연합작전 시 각 부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휘조직의 문제가 가 크게 대두되었다.⁷⁾

다국적군의 지휘관계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고, 다국적군에 군대를 파견한 모든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특히 정치 및 여론의 인식과 더불어 국가적, 도덕적, 종교적 자긍심은 군사적 요구만큼이나 이러한 지휘관계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

당시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H. Norman Schwarzkopf) 대장은 미군이 어떻게 해야 기타 동맹국 군대들과의 협조가 가능한가 하는 고민을 해야 했다. 다국적 군대를 지휘함에 있어 각기 영어나 아랍어, 프랑스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언어문제에 추가하여 미묘한 정치문제가 있었다. 아랍 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서방측 병사와 군대는 없었다. 또한 사우디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으려하지 않았다. 사우디군의 입장에서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였다.⁹⁾ 사우디의 군대를 사우디 영토 안에서 참전한 다른 국가의 군대가 지휘·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종교적·문화적·민족적 측면에서 사우디의 정치가들과 국민들, 그리고 아랍

7) 권태영·노훈, 전계서, 124쪽.

8)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5쪽.

9) R. 파일 저, 강창구 역, 『슈워츠코프(승리를 위한 지휘)』, 병학사, 1992, 117쪽.

및 이슬람권 국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전쟁수행능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군이 아랍군의 지휘통제 하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군은 첨단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저급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사우디 군을 포함한 아랍 합동군은 군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전장 상황을 손바닥처럼 보고 신속하게 결심하고 타격할 능력을 갖춘 군대가 그렇지 못한 군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미군이 사우디에 도착했을 당시 미군과 사우디군 간의 지휘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자국군의 지휘 하에 들어오도록 주장했지만, 결국 제각기 자국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행동하고, 양국의 행동의 조정은 최고사령관 수준에서 조정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¹⁰⁾

이로써 동등하지는 않으나 미국과 사우디는 별개의 지휘계통으로 다국적군의 지휘 및 통제체계가 확립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군대는 각자의 국가 지휘 하에 남아 있었다. 미 중부사령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군대 가운데 미군에 대해서는 전투지휘, 영국 및 다른 서방국가들의 군대에 대해서는 작전통제 그리고 프랑스군에 대해서는 전술통제를 실시하였다.(최초 사우디의 전술통제를 받던 프랑스군은 ‘사막의 폭풍작전’ 준비기간인 1990년 12월 중순경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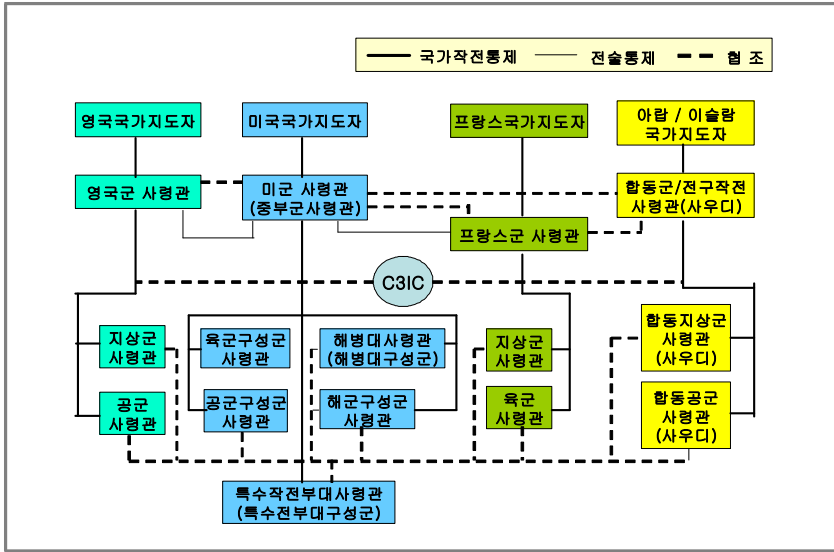
한편 아랍 및 이슬람권의 국가들¹²⁾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응징하기 위해 사우디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들 국가들의 군은 사우디의 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아랍합동군의 작전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도록 합의하였다.

10) 기다히데도, 오정석 역, 『걸프전쟁』, 연경문화사, 2003, 332쪽.

11)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5~446쪽.

12) 아랍 및 이슬람권의 주요 참전 국가들은 이집트, 시리아, 파키스탄,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이다.(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육참고, 『세계전쟁사(하)』)

〈표 3〉 사막의 폭풍작전 시 다국적군 지휘체계¹³⁾



이러한 다국적 작전지휘체계를 통하여 서방국가의 국가지휘부들은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한 반면, 이슬람국가들은 사우디에게 그들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¹⁴⁾

당시처럼 다양한 국가의 군들로 편성된 연합군을 지휘통제하는 문제는 특히도 어려웠다. 어렵게 구성한 연합군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정치 및 문화적 차이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슈워츠코프 미 중부사령관이 비 아랍국가들의 전력을 통제하고, 사우디의 장군인 술탄(Khaled bin-Sultan)이 아랍국가들의 전력을 통제하는 병립적인 지휘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능상으로 보면 슈워츠코프 대장과 술탄 중장은 지휘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였으나 미국의 지휘관인 슈워츠코프가 보다 상급자였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전쟁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전쟁 중에 노정된 일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감한 형태로

13) 국방군사연구소 역, 상계서, 446쪽.

14) 국방군사연구소 역, 상계서, 445~446쪽.

설계된 지휘구조가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지는 않았다.¹⁵⁾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가 대등한 병립적인 지휘체계 하에서 누가 작전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수행에 있어 누가 최종결정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결심의 문제이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의 지휘관계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1990년 11월 5일에 미국과 사우디 양국 간에 합의되었다. 미국과 사우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은 ① 군사작전을 개시할 때는 현행의 합동 지휘권 형식을 계승한다. ② 단, 모든 군사작전에 관해서 미군사령관이 ‘최종적인 승인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①번 항은 사우디 주권에 대한 배려였다. 즉 미 중부사령관과 아랍 합동군사령관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는 것이다. 그러나 ②번 항은 미 중부사령관이 공격작전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군측이 지휘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¹⁶⁾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은 아랍 합동군사령관으로부터 그 진의(眞意)를 질문 받았으며, 그의 답변은 “공격작전계획 수립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결정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며, 아랍 합동군사령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은 없을 것이라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해를 시켰다.¹⁷⁾

슈워츠코프 대장은 미 중부사령관으로서 걸프지역에 전개한 미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함과 아울러 아랍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육·해·공군의 작전 전반도 총괄하게 되었고, 또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야전군 사령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¹⁸⁾ 즉, 슈워츠코프 사령관은 미 중부사령관과 중부사 예하의 지상구성군사령관직을 겸임하면서 미 육군과

15) 도널드 M. 스노우·테니스 M. 드루, 권영근 역.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연경문화사, 2003, 356쪽.

16) 기다히데도, 전계서, 334쪽.

17) 기다히데도, 전계서, 334쪽.

18) 기다히데도, 전계서, 334쪽.

미 해병대를 포함하는 지상군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지휘체계는 혼합지휘체계로서 미 중부사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가 각각 단일지휘체계를 이루면서 양군 사령부가 대등한 관계로 병립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의 합의에 의거하여 미 중부사령관이 작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미 중부사령부가 다국적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 작전 시 각국에 부여된 임무는 정치적 제약 및 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다. 예를 들면 이집트와 시리아 정부는 자국의 군대가 이라크 영토 내에서 전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착부대나 예비대로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쿠웨이트 해방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¹⁹⁾

그러나 각 국의 군에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작전부대 사령관이었던 슈워츠코프 장군이 참가국들의 요구사항을 정치적 제약이나 능력에 부합하여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전략적 수준의 문제로써 미 국방부나 합참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2)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 운용

(1) 연합 협조, 통신, 통합본부(C3IC)²⁰⁾ 운용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도전은 하나의 통합사령부의 도움 없이 다국적 지상군부대 사이에 통일된 노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NATO와는 달리 여기에는 다국적 활동을 조정하는 단일 사령관이나 연합군이 없었다. 합동기획과정을 활용하고 매일 매일의 다국적군 작전의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합작전본부가 필요

19) 기다히데도, 전게서, 335쪽.

20) 이하 C3IC로 표기함.

하였다. 사우디군과 근무경험이 있는 육군구성군사령관이 이러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곧 다국적군의 C3IC가 1990년 8월 13일 창설되었다.²¹⁾

이 C3IC는 미 중부사의 육군구성군과 사우디군에 의해서 운용되었다. C3IC의 최초 임무는 사우디에 집결중인 다국적군 지상군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 12월에 ‘사막의 방패작전’이 무르익고 다국적군의 규모가 확대되자, 이 C3IC의 미군 작전에 대한 책임이 육군구성군에서 미 중부사령부의 참모에게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C3IC의 임무도 일차적으로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작전(사막의 폭풍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²²⁾

육군구성군이 설치한 C3IC는 모든 다국적군 부대에서 파견되어 온 장교들에 의해 운용되었다. 이 C3IC는 다국적군의 훈련지역 협조, 사격장, 군수, 주파수 운영, 정보교환,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련된 많은 고유의 사항에 관해 협조하는 일차적인 기구 역할을 하였다.²³⁾

이후 C3IC는 확대되어 지상군, 해군, 공군, 특수작전 그리고 정보 분야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C3IC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전 기간을 통해 운용되었고, 다국적군 간에 공격작전에 있어서 통일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C3IC를 운용하는 책임자는 각 지휘체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되었다. 미 중부사 측에서는 육군구성군의 부사령관이, 그리고 사우디의 합동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 C3IC를 지휘하였다. 또한 C3IC 내 부서로는 각각 사우디군과 미군 장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상군, 공군, 해군, 방공, 특수작전, 군수 그리고 정보과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장교들은 미 중부사와 사우디의 아랍합동군사 부대들 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프랑스군, 사우디 국방경비대, 그리고 미 제7군단은

21)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8쪽.

22)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49쪽.

23)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1992, 121쪽.

각각 이 C3IC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²⁴⁾

미국과 사우디의 군사계획담당관들 사이에는 양국 군대의 규모, 임무 그리고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과 전문지식에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합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회의를 매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가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고, 지역을 이해하고 필요한 작전경험을 갖춘 미군의 아랍어 능통자가 중요시 되었다. 사우디군 선임장교들이 작전계획의 아랍어 번역본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동안, 미국 측 소수의 아랍어 능통자들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계획을 재검토하였다.²⁵⁾

다국적군의 C3IC는 모든 다국적군의 선임장교들에게 이라크군 및 다국적군의 상황에 대해 매일 브리핑과 최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브리핑에 참가하는 장교들은 통상 미 중부사령관이나 부사령관, 사우디 합동군사령관이었다. C3IC의 작전상황 브리핑 책임은 미군과 사우디 장교가 번갈아 맡았다. 이로써 모든 다국적군 편성국들이 작전 준비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전쟁 전 기간 동안 작전수행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었다.²⁶⁾

이 C3IC는 미 중부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던 동일 시설 내에 위치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였다. 당시 미 중부사는 리야드(Riyadh)에 있는 사우디 국방 및 항공부 본부 복합건물의 국방작전본부에 위치하였다. 다국적군의 C3IC는 바로 미 중부사령관실, 중부사의 합동작전본부와 합동정보본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²⁷⁾

걸프전 시 수행된 다국적 작전에 대한 양개 사령부간의 실질적인 조정·통제는 이 C3IC 및 다국적군 참가 각국 군 사령관들의 매일 회합, 미 중부사령관과 이라크 합동군사령관 또는 연합계획팀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²⁸⁾

24)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9~450쪽.

25)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1992, 122쪽.

26)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50쪽.

27)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49쪽.

28) 기다히테도, 전계서, 335쪽.

미 국방부의 걸프전쟁 관련 의회최종보고서는 다국적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다국적군의 지휘관계 형성과 실행은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은 지휘관계 수립에서 혁신과 융통성을 지녀야만 한다. 미래의 전쟁에 있어서 작전 계획관들은 다른 나라의 지휘, 통제 및 통신 기반시설 내에서의 작전상의 도전을 고려해야 한다. 전투지휘관(Combatant Commander)²⁹⁾들은 모든 미군 및 연합군과 훌륭히 운용될 수 있는 전개 가능한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를 보유해야만 한다.”³⁰⁾고 하면서, “통합사령관은 없었으나 다국적군의 지휘체계는 각급 부대 및 참모요원의 전문성과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이었다.”³¹⁾라고 평가하였다.

(2) 연락반 운용

걸프전시 미군은 다국적 작전수행 간에 연락반을 대규모로 운용하였으며, 이러한 연락반 운용은 작전의 협조·조정에 긴요하였다. 미 중부사령부 육군구성군, 특수작전부대, 미 공군전방항공통제관, 공군연락장교, 해병대 항공함포연락중대의 연락반들은 다국적군의 협조와 통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군 전투교리에는 측방부대 간, 상급부대와 하급부대 간, 구성군 간 그리고 다국적군 상호간에 연락반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리에 근거하여 미 중부사령부의 육군구성군은 상당한 통신능력을 갖춘 연락반을 육군의 2개 군단(제18공정군단 및 제7군단)과 미 제1해병원정군에 각각 파견하였다.³²⁾

연락반들은 또한 다른 다국적군 부대에도 배속되었다.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의 연락반들은 평균 35명으로 편성, 아랍합동군사 예하의 동부 및 북부합동군에 파견되어 ‘사막의 폭풍작전’ 계획수립을 지원하였고, 상급부대

29) 전투지휘관(Combatant Commander)이란 미 태평양사령관, 미 유럽사령관 등과 같은 통합군사령관들을 의미한다.

30)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81쪽.

31)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1992, 123쪽.

32) 국방군사연구소 역, 상계서, 490쪽.

및 인접부대와와의 협조를 원활히 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투참모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연락반들은 미 중부사 및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 사령부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위성통신장비 일체를 갖추고 있었다. 예하부대와 인접 다국적군 부대에 파견된 연락반들은 미 중부사령관과 육군구성군 사령관의 눈과 귀가 되었고, 공세작전(사막의 폭풍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군 이외의 다국적군 책임지역의 정확한 전황을 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들 연락반들은 연합전투의 동시성, 협조 그리고 통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³³⁾

미 중부사는 위성통신 체계를 갖춘 연락반 운용을 통해서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부사령관의 의도를 반영하였고, 작전실시간에는 실시간 상황파악을 통해 지상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었다. 미 중부사의 연락반의 운용은 사막의 폭풍작전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의 지휘체계는 혼합지휘체계였다. 미 중부사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가 병립하는 형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 중부사령관이 작전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 중부사는 미 중부사와 아랍합동군사 간에 C3IC를 운용하는 동시에 대규모 연락반을 지상군 군단급 사령부, 각 구성군 간 등 상·하·인접부대에 파견, 운용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연합작전에 있어 노력의 통일을 기할 수 있었다. 당시의 다국적군 협조기구의 운용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평가와 다르게 당시의 다국적 작전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권태영·노훈 박사 등은 “걸프전시 사우디와 미군 간의 C3I체계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많은 단점을 표출하였다. 걸프전 시의 경험을 토대로 미군은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

33)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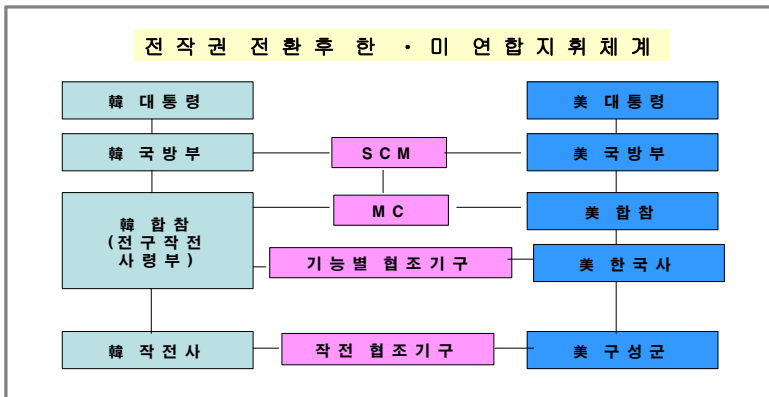
에서는 미군 중심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라크전쟁에서 마·영군은 통일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되, 작전지역을 분할 운영하여 지휘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였다.”³⁴⁾ 라고 혼합지휘체계 하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이 운용했던 협조기구(C3IC)와 대규모 연락반의 운용 등은 이러한 혼합지휘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상당 수준으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2015년에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한은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 한·미 연합지휘체계는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지휘체계와 유사하게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단일지휘체계를 이루며, 대등한 관계로 병립하는 혼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다.

〈표 4〉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지휘체계³⁵⁾



34) 권태영·노훈, 전계서, 124쪽.

35)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2009년 7월호』, 2009, 30쪽.

한·미 양측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개념에 합의하였다.

걸프전쟁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지휘체계는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 지휘체계 형태임으로 한·미 양국 사령부간의 효과적인 협조기구의 운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걸프전쟁 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향후 한·미 연합협조기구의 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에 대해 한·미간 문서상의 합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걸프전쟁 시 미국과 사우디는 미 중부사령부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가 대등한 지휘관계임에도 미 중부사령관이 작전계획수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 중부사령관이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합의하였다.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과 미군의 지원관계는 한국군이 피지원(Supported)³⁶⁾, 미군이 지원(Supporting)³⁷⁾하는 것이다. 양국군의 이러한 지원관계를 설정하였으므로 당연히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에 있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유추해석 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전구작전계획 수립과 준비, 그리고 작전수행 과정에서 미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작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누가 ‘최종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걸프전쟁 시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이 말했듯이 “미군의 동의 없이는 결코 한국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한·미 양국군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문서상의 한·미 합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36) 교리상 피지원(Supported)의 의미는 지시에 의거, 다른 부대로부터 군사작전수행에 필요한 도움 또는 방호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전투력을 보충 받는 것을 말한다.(야교 0 『지상군기본교리』, 2011.10.1)

37) 교리상 지원(Supporting)의 의미는 지시에 의거, 타 부대를 도와주거나 방호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전투력을 보충 또는 유지하며, 전투 시에 단위부대가 다른 단위부대를 원조하고 특정 단위부대의 일부가 예비대로 후방을 담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활동을 말한다.(야교 0 『지상군기본교리』, 2011.10.1)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능력을 배가하는 일일 것이다. 걸프전쟁 시에도 결국 아랍군에 비해 첨단전력을 보유하고 작전수행능력이 우수한 미군이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하였다.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하거나 거의 비슷한 전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갖추었을 때³⁸⁾, 비로소 한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둘째, 한·미군 간의 협조기구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양군의 부지휘관급이 지휘통제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C3IC는 각각 사우디와 미군 장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상군, 공군, 해군, 방공, 특수작전, 군수 그리고 정보과 등으로 편성되었다. 연합 정보와 방공, 군수 그리고 3군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서가 편성되어 작전계획의 수립과 조정, 작전지원, 그리고 부대이동, 교육훈련 등 연합작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있는 부서로 편성되어 운용되었던 것이다.

한·미군 간의 협조기구도 제대별로 작전수행 간 협조와 조정에 필요한 기능별 부서가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C3IC와 유사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작전을 고려하여 민군 또는 안정화작전 수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기구는 전시편성이 아닌 평시부터 편성 운용되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평시부터 완편 인원이 근무하는 상설기구로 편성되어 한·미 양국군의 장교가 연합으로 근무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협조기구 편성인원이 전시에 동원 또는 학교기관으로부터 전환되는 요원으로 편성된다면 전시에 즉각적인 기능발휘가 극도로 제한될 것임에 틀림없다.

38)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을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주한 미군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 연합작전체계 구축은 대북침략억제, 동북아 전력균형, 그리고 대미 외교관계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 협조기구의 책임자로 부사령관급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 C3IC는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의 부사령관과 사우디 합동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이 지휘하였다. 즉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협조기구를 지휘통제함으로써 C3IC의 위상과 편성, 예산상의 지원과 양국 사령관의 지도아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한·미 연합협조기구도 제대별로 사령관의 위임을 받아 협조기구를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시 대비 현 한·미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 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 MC 연락기구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MC 운용에 대해서는 현용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은 한·미 MC의 전략지침에 의거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전략지침의 하달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MC는 년 2회 정기적인 회의만을 개최토록 함으로써, 전시 한·미간의 전략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적시·적합한 전략지침을 하달하기에는 운용상 제한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걸프전쟁 시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은 참전국들의 정치적 제약과 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전시 한·미 연합작전 수행 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참전할 것이고, 이러한 참전국들에게 각국의 정치적 제약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쟁 상황의 변동³⁹⁾에 따른 작전수행의 변경이나 조정 등이 요구될 때, 신속하고 적합한 전략지침이 하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MC 운용체제로는 이러한 전쟁 상황변화에

39) 6·25전쟁 시와 같이 한·미 연합군의 북진작전 중 중국군의 국경선 집결 상황 또는 참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군이 전략적 수준의 문제에 관해 상시 협의하고 조정하여 적시·적합한 전략지침을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상설 MC 연락반의 설치 및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한·미 협조기구에는 영어에 능통하며, 군사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원을 보직하도록 해야 한다.

걸프전쟁 시 C3IC에 근무하는 미군과 사우디군 작전계획 담당관들은 연합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으며, 미군은 아랍어에 능통하고 작전경험이 충분한 요원들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한, C3IC가 모든 다국적군의 선임장교들을 위한 작전상황 브리핑은 미군과 사우디군 장교들이 교대로 실시했다.

따라서 한·미 연합협조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는 기본적으로 연합작전계획 수립 간 토의에 참여하여 한국군의 상황과 의도를 개진할 수 있으며, 작전계획을 영어로 번역하고 브리핑을 영어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영어 능통자 그리고 유능한 군사분야 전문가를 선발, 보직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연합협조기구는 한국군 합참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걸프전시 다국적군 C3IC는 미 중부사령관실, 중부군사령부의 합동작전본부 및 합동정보본부 바로 인근에 있었다. 즉 연합협조기구의 위치는 양군 사령부 인근에 위치하여 양국군의 사령관들이 매일 혹은 수시로 상호 방문하여 적과 다국적 동맹국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한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향후 한·미 연합작전협조기구도 양국 지휘관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 합참 그리고 지상작전사령부 내에 혹은, 이들 사령부와 근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조기구의 종합상황실과 양국의 다양한 기능별 대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유엔파견국들과 각군 구성군사령부와 예하부대

에서 파견될 수 있는 연락장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평시 연락반 운용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운용이 요구된다.

미 중부사가 아랍 합동군사와의 긴밀한 작전협조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전문연락단의 효과적인 운용에 있었다. 미 중부사는 각 군단 및 제1해병원정군에 연락반을 파견한 것 외에도 아랍 합동군사령부 예하의 북부합동군과 동부합동군에 연락반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연락반들은 위성통신 수단을 갖추고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에 제공함으로써 연합작전의 조정,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반도 전구는 단일전구로써 한국군은 평시와 전시에 대규모 연락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평시에 연락반 편성, 통신수단, 연락반 운용지침 등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전시에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2015년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된다면, 한·미 연합작전 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등한 지휘관계를 갖는 혼합지휘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누렸던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수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 작전간 C3IC와 연락반의 운용 사례는 향후 한·미 양군의 협조기구 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 설치 운용되게 될 연합협조기구의 효과적인 운용이 한·미 연합작전 시에

한·미 연합군의 노력을 통일시키며, 작전의 성공을 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 협조기구 운용 사례를 통해 향후 한미 연합지휘기구 운용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에 대한 한·미간 문서상의 합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군 간의 협조기구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부지휘관급이 지휘통제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시 대비 현 한미 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 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 연락기구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조기구에는 영어에 능통하며, 군사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원을 보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연합협조기구의 위치는 한국군 합참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수용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 여섯째, 전·평시 연락반응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시행이 요구된다.

현 우리군의 전력은 아직도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군의 전력에 미치지 못하며 전시 작전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적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적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우수한 전력을 가진 미군을 상대로 작전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군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일 것이다.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 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쟁 후 국가기반시설과 북한 주민의 보호와 지지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지역의 타격목표와 수단의 선정에 있어서 한국군이 최종결정권을 가져야만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만 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을 조정 통제할 협조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은 한·미 양군의 노력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다.

2015년은 멀지 않은 미래다. 2015년 이후 한국군은 한반도 전구에서 전시 군사작전을 주도하며 미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군의 전력 증강과 작전수행 능력의 향상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전작권 전환, 걸프전쟁, 연합지휘체계, 협조기구

<ABSTRACT>

The Active Plan for the ROK-US Combined Coordination Organization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Authority

Cho, Sung ju

In 2015 the wartime OPCON authority will be turned over to ROKA. After the turnover, the command arrangement and the chain of command between ROKA & USFK will be based on equal status. The combined chain of command is similar to that of the multinational forces in the Gulf War.

In Gulf war, American CENTCOM was equal to Arab JOINTCOM in the command arrangement. Under the dual chain of command, the assessment on the application of Coordination organizations for unifying efforts between CENTCOM and Arab JOINTCOM was remarkably effective.

CENTCOM and JOINTCOM used the Combined Coordination, Communication, Intergration Center(C3IC) and the Liaison Parties as a coordination organization. C3IC played the great role in the accomplishment of unity of efforts in the multinational operations through coordinations and adjustments. Also CENTCOM employed the large scale Liaison Parties at the adjacent and subordinate unit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situation of operations in real time.

Through A study on the multinational operation of coordination organization during the Gulf War, Active plan for the ROK-US combined coordination organization in near future are as follows:

First, examine the documentation of the final decision authority on the combined operation between ROK-US:

Second, the cooper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permanently, and controled by the responsible deputy commanders;

Third, the officers who speak English fluently and possess the military expertise should be assigned to the cooperation organization:

Fourth, MC Liaison Party should be established permanently to complement the current MC to prepare for the war:

Fifth, the cooperation organizations should be located in the ROKA command building or at an adjacent location and have enough space:

Sixth, a thorough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the Liaison Party are requested in peace time and during the war.

Key Word : Transfer of OPCON authority, Gulf War,
Combined Command System, Cooperation organization

